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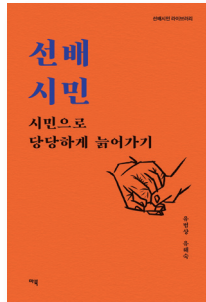
책과 함께
나와 공동체를
찾아가는소풍길

Book Letter 상상상

유범상 교수의 마흔여덟 번째 편지

선배시민 선언

노년에도 누구나 보통 사람으로 살 권리가 있다



선배시민

유범상·유해숙 지음

마북, 2022

북레터 상상상은 매달 마섬의 추천도서를 직접 받아보시는 정기구독 서비스입니다. 2개월 이내의 신간 중 추천도서를 선정하며, 도서와 함께 유범상 교수의 북리뷰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T. 010-6744-6648 / e-mail: waterforchange@hanmail.net)

1 만남

40대 중반에 노인에 관심을 가졌다. 주요 초점은 늙음과 죽음, 노년의 딱딱한 삶, 노인의 취미와 여가가 아니라 시민교육이었다.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노인집단에게 민주 시민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목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했다. 선배시민론은 애초에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선배시민론은 학회에 발표도 하고, 시민강좌를 개최하면서 삶이 붙여졌다. 한편으로 선배시민 담론이 수용되는 공간과 사람들이 늘어났다. 초기에는 사단법인 마중물 사람들과 강좌를 수강한 몇몇 노인복지관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이하 한노협) 소속 노인복지기관들이 함께하면서 선배시민은 '론'에서 '운동'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방송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는 '사회복지와 선배시민'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었다. 머지않아 학부에도 교과목으로 등장할 예정이다. <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유범상·유해숙)가 나오면서 선배시민학회 발기인대회(2022. 3. 26)가 개최되었고, 창립대회(5. 21)로 이어질 것이다. 선배시민론은 이렇게 한국사회로 서서히 나오고 있다.

2 둘러보기

노인이 되면 갑자기 보통 사람의 대열에서 이탈한다. 'No人'이나 'Know人'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분리이론에 따르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분리가 일어나면서 돌봄의 대상이 된다. 사람도 아닌 잉여의 존재, 즉 No人인 셈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를 갖추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현자가 된다. '노인 한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한 개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언명은 이런 지혜롭고 신비스런 존재, 즉 Know人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비참하거나 현자인 두 존재 모두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현실에서 나이가 들면 No人이 될 개연성이 크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끌 수 있다. 노인빈곤율 45%를 감안하면 타당성이 있다. 한편, Know人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 노인이 된다고 갑자기 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을 없으면 Know人보다 No人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농경사회에서 노인들이 가졌던 지식이나 지혜는 정보화사회에서 더 이상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No人이나 Know人은 양극단의 노인상이다. 그런데 사실 노인이 되는 순간 개성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자신의 고유성을 가진 다양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노년상이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이다. 액티브 시니어는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등장하는 노인들을 떠올리면 된다. 여행을 하고, 취미와 여가를 즐기며,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성공적 노년(successful aging)이다. 이들은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 나이 든 보통 사람들이다.

이론적으로 액티브 시니어가 노년의 자연스런 모습일 수 있다. 현자로 기대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Know人보다 삶이 자유롭다. 이들이 No人과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력이다. 성공에 수반되는 재산이 노후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한다. 이들이 나이 든 보통 사람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평범하지 않은 기반, 즉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의 노년이 돈 걱정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선배시민론이다.

선배시민론은 노인이 시민이고, 선배이고, 인간이라는 존재론적 특성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강조점은 노인이 시민이라는 점에 있다.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면 적어도 돈을 걱정하지 않는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으로서의 노인이라는 명제를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 한다. 왜 이렇게 시민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 할까?

노인들에게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은 시민입니다. 시민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대체로 쉽게 대답이 돌아온다. 최근에 제시된 5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추가된 것이 환경보존의 의무 등이다. 납세는 일상이 납세의 삶이라고 말한다. 직접세뿐만 아니라 간접세를 내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방은? 보통 국방의 의무는 남성의 군필로 등치된다. 국가는 남성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부과했다. 그런데 국가방위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범위를 넓힌다면 모든 사람들이 삶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국방과 연결된다.

강의 참여자들에게 시민의 의무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권리에 대한 질문을 던져본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노인들이 권리에 대해 의무만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사실 오늘날 노인들이 청소년기에 의무만을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조국과 민족의 중흥과 영광을 위해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라는 정언명령을 일상에서 늘 듣고 살았다. 그러지 못하면 적화될 수 있다는 반공주의와 함께! 이런 의무를 다하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 어떻게 '빨갱이'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시민권을 말할 수 있을까? 시민권은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대별된다. 노인들은 자유권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사회권을 이해하지 못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잠겨 있어, 사회보장을 불온시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둘째, 은유에서 그리고 셋째, 외국의 사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행복할 권리(헌법 10조), 평등권(헌법 11조)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34조)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34조), 환경과 주거(35조), 교육권과 노동권(31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들은 사회권에는 저항하나, 헌법에서 명시된 사회권에는 수긍한다. 그래서 사회권을 이야기할 때 헌법이 안전판이 된다.

시민권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 소정의 의무를 다해야만 권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의무 이행여부에 관한 논쟁을 거쳐야 권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활용되는 은유가 성경에 나온 '돌아온 탕자' 이야기이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오자, 아버지는 말한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왔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자 아버지 곁에서 집을 지켰던 큰 아들이 불만을 터뜨린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지 않던 아버지, 이건 너무 하시는 것 아니어요?' 아버지는 말한다. '그래도 최소한 먹여 주고, 입혀 주고, 깨끗한 곳에서 자게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가족이니깐!'

노인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으면 대다수가 자



www.masambooks.com
21674 인천 남동구 소래역남로16번길 75 B101
T 032 423 0990 F 032 423 0993

식이 원수라면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자식이 국민이고, 아버지가 국가라면 국가는 국민이라는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다. 이 비유처럼 시민권은 업적이나 기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지위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서 복지국가의 시민들의 삶을 사례로 보여준다.

이제 선배시민의 두 번째 측면인 선배에 대해 생각해 보자. 노인들에게 선배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때 부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온다. 군대, 직장, 동네 선배에 대한 나쁜 추억 때문이다. 하지만 선배시민론에서 말하는 선배는 ‘시민으로서의 선배’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시민선배는 다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민의 의무와 권리를 알고, 둘째, 시민권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후배들을 돌보는 존재이다. 셋째, 시민권을 알려주고 함께 실천하기 위해 후배들과 소통하는 존재이다. 시민과 선배의 의미가 명확해지자 ‘선배시민’이라는 담론의 퍼즐이 맞춰진다. 선배시민은 시민권을 당연한 권리로 자각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공동체에 참여하여 자신은 물론 후배시민과 소통하며 목소리를 내는 존재이다. 이런 선배시민의 정체성과 의지를 담은 것이 <선배시민 선언문>의 첫 번째 부분이다.

우리는 선배시민이다

우리는 시민이다. 공동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다.
우리는 선배이다. 후배시민과 소통하고 그들을 돌보는 선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후배시민을 돌보는 의무를 다한다.

<선배시민 선언문>의 두 번째 부분은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담았고, 세 번째 부분은 선배시민의 실천방향을 담고 있다. 즉 선배시민은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에서 당당하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해 소통하고 학습하면서 후배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면 그것은 곧 길이 될 것이다.

3 상상

그동안 노인에 대한 논의는 돌봄의 대상으로 다루어졌다. 이때 시민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자선을 베풀거나, 국가는 선별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한편 신노년에 기반해서 ‘청바지를 입은 노인’으로 표상되는 활력있고, 생산적이고, 주체적인 성공적인 노년에 관한 담론이다.

선배시민론은 노인을 시민, 선배, 그리고 인간의 세 가지 존재로 재현한다. 어떤 책을 참조할까? 누스바움이 “노년의 수수께끼를 깊이 성찰하는 책을 찾아 보기 어렵다”(p. 11)고 할 정도로 노년에 관한 깊이있는 책이 많지 않았다. <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를 저술하는데 참고한 핵심적인 책은 세 권이다: 보부아르의 The Coming of Age, 누스바움의 Aging Thoughtfully, 키케로의 How to Grow Old. 국내에 번역출간된 관련 책으로 각각 <노년>,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노년에 관하여>가 있다.

이 책들은 공통으로 노년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누스바움이 “노인의 주름살 속에서 좋은 것을 찾고 나아가 지혜를 발견하는 탐색은 저 멀리 키케로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p. 9)라고 말했을 정도로 키케로가 논의의 출발점이다: “노년의 가장 적절한 무기는 덕을 갖추는 것인데, 덕이 인생의 모든 시기에 연마된다면 오랜 기간을 산 후에는 놀랄 만한 결실을 맺게 되지”(키케로, p. 28). 누스바움도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주름살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혜와 유머와 사교성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한다(p. 84). 이 책들은 노인들의 삶과 죽음의 태도에 주목한다:

“내 나이 78살이지만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늙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좀 든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 내가 상당히 독립적이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테인, p. 453).

보부아르와 누스바움은 개인의 태도에 주목하면서도 구조와 정책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들은 노년에 관해 논의할 때 흔히 간과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노인의 다양성을 간과한다. 보부아르는 사람들이 “노인들의 사랑과 질투는 추하거나 우스꽝스럽고, 성 행위는 혐오스러우며, 폭력은 가소로운 것으로 여겨진다. … 노인들에게 요구하는 승화된 이미지는 백발의 후광에 싸인 경험이 풍부하고 존경할 만한 인간, 인간 조건을 저 높은 곳에서 굽어보는 현자”라고 말한다(p. 11). 그런데 노인들 개개인은 모두 다르다:

“나이 들은 일반화의 위험이 아주 높은 주제다. 우선 아동기나 청소년기와 비교해도 노년기에는 훨씬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훨씬 일찍부터 심각한 치명적인 병에 시달린다. 어떤 사람들은 100세가 넘게 살면서도 치매를 전혀 경험하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50대부터 벌써 치매를 경험한다. 치매의 유형도 다양하다”(누스바움, p. 209).

누스바움은 보부아르의 <노년>을 비판한다. 왜일까? 보부아르가 나이 들을 일반화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보부아르의 <노년>을 읽으며 엉터리인 것을 넘어 나쁘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에 그 책은 사회적 낙인 및 부정의에 가담하고 있다”(p. 215):

“<노년>은 내가 접해온 유명한데 엉터리인 철학 서적들 가운데도 가장 엉터리다. 일반화의 위험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다양성을 함부로 짓밟고, 부분적이고 모욕적인 전형들을 합리화하며, 노인들에게서 주체성을 박탈한다”(p. 213).

한마디로 보부아르조차 노인의 모습을 정형화하고 있다는 것이 누스바움의 평가이다. 노인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간과하고 있는 두 번째 지점은 노인들 간의 불평등이다. 우리는 노인의 불평등에는 주목하지만 노인들 간의 심각한 불평등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그런데 노인빈곤층에 관심을 갖는다 해도 이들을 위한 정책은 쉽지 않다. 이들의 빈곤은 그들 탓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견해에 부유층 노인들도 동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문제를 다룰 때 주목하지 않는 세 번째 지점은 노인들의 젠더 차별 문제이다:

“어떤 나이 드는 남자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은 분석력, 기술, 기존의 질서에 대한 전복적인 도전이 아닌 ‘지혜’를 강조한다. 여성의 경우 이 ‘지혜’마저 부정된다. 노년기 여성에 대한 긍정적 전형은 ‘완벽한 할머니’인데, 이 전형은 유순하고 상냥한 행동을 암시하며 직업적으로 성취를 거두었다거나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것과는 무관해 보인다”(누스바움, p.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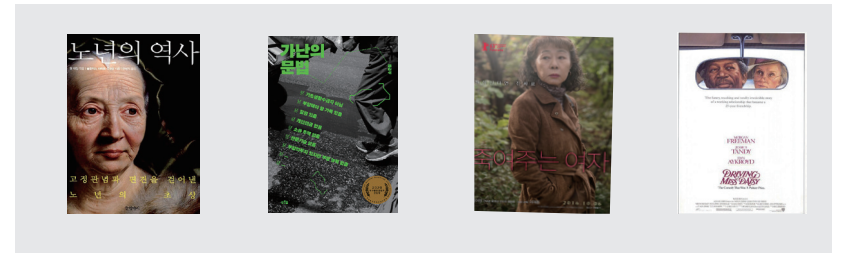
선배시민론에서 주목할 점은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이다. 누스바움은 “흔히 노년기에 이르면 역량을 상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들 생각한다. 바로 그런 편견이 우리에게 절

실히 필요한 토론에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p. 404)라고 비판한다. 역량접근법은 “사람들이 가치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활동을 선택할 실제적인 기회”를 중시하며,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역량목록’에 포함된 구체적인 기회들을 최저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p. 381). 보부아르는 역량이라는 담론에 주체성이 담겨있다면 누구나 다 선택의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노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노인의 생활여건 개선(돌봄제도 확충, 의료보험, 의무퇴직 폐지 등)을 추구하는 정치적 운동을 벌인다면 집단 내부의 유대감은 낙인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 된다. 이때 집단 내부의 유대감은 활동력을 높이고 자기에 대한 존중을 강화한다”(누스바움, pp. 125-126). 이처럼 노인들은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편견과 혐오 그리고 차별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4 친구들

함께 볼 책으로 <노년의 역사>와 <가난의 문법>을 제안한다. <노년의 역사>(팻 테인. 글항아리. 2012)의 부제 ‘고정관념과 편견을 걷어 낸 노년의 초상’에서 보듯이 노년의 사회사와 문화사를 편견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늙음과 노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가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가난의 문법>(소준철. 푸른숲. 2020)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특히 여성노인에 대한 생애사 글이다. 이것을 통해 저자는 가난은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가난한 삶의 경로와 우연하지만 필연적이었던 구조들을 가시화’해서 가난의 문법(구조)을 보여준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는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박카스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영’은 단골 손님이었던 노인의 ‘조력 자살’의 부탁을 받고 그를 ‘죽여주는 여자’가 된다. 이 영화는 노인의 고독생과 사랑, 죽음에 대해 다룬다.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Driving Miss Daisy, 브루스 베레스포드 감독, 1989)는 퇴직하고 노인이 된 백인 여성의 전직교사 데이지와 운전사로 고용된 흑인 남성 운전자 간의 우정을 그린 영화이다. 이 영화는 인종차별과 편견, 그리고 노인의 우정을 묘사하고 있다.

5 독서모임을 위하여

<선배시민: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는 노인의 시민성에 대한 책이다. ‘선배시민’이라는 단어에서 선배보다는 시민에 주목하고, 선배에 주목할 때도 ‘시민이라는 맥락에서의 선배’를 논의한다. 한 마디로 시민론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동아리는 먼저 나에게 시민이란 무엇인가를 논의할 수 있다. 둘째, 시민의 관점에서 노인이란, 그리고 한국의 노인이란 어떤 존재, 어떤 상황, 그리고 어떤 개인적·사회적 역량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셋째, 다양성의 관점에서 노인에 씌워진 차별, 혐오, 배제의 시각과 젠더, 불평등, 편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토론해 보자.